

# “역사적 범죄 끝까지 처벌...증거 확보 중요”

과거사 청산 해법 찾기 '광주아시아포럼'

### 롬멜 독일 나치범죄증상사무국장 부역자 처벌 과정 소개 “세월 지난 국가범죄 재판은 증언 아닌 기록으로 접근해야”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언젠가는 법정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범죄 해결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 '광주아시아포럼' 발표자로 나선 옌스 롬멜(Jens Rommel) 독일 나치범죄증상사무국장은 과거사 청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롬멜 국장은 이날 '미완의 과거 청산-성과의 쟁점' 두번째 발표자로 참여해 '홀로코스트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독일의 나치 부역자 처벌 과정을 소개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논쟁거리인 5·18민주화운동과 달리 독일 나치 범죄는 끝까지 처벌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1950년대에 이미 이뤄졌다. 나치 부역자 처벌을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나치범죄증상사무국은 1958년 설립됐다.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퍼져 있는 나치 부역자를 추적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 기소를 이끌고 있다. 독일은 올해에도 폴란드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92세 남성을 법정에 세우는 등 지난 60년간 나치 부역자 7000명을 기소했다.

롬멜 국장은 나치 범죄자 처벌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시간을 꼽았다.

그는 “세월이 지나며 국내(독일) 기록은 대부분 파괴됐고, 외국에 있는 자료는 접근이 어렵다”며 “또 관련자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범죄에 관한 재판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증언이 아닌 기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독일은 미국 법무부, 폴란드 범죄수사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고 조인했다.

독일은 나치 범죄자들을 직책이 높은 책임자와 직책이 낮은 실행자 두 그룹으로 나눠 다루고 있다. 책임자의 경우 기록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만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등 실행자들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렵게 실행자들은 찾았더라도 그들이 범죄를 부인하면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롬멜 국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경험에 봤을 때 피고들이 희생자에 대한 반성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경우는 드물었다”며 “그들에게 자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범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치범죄는 범죄 장소가 대다수 파괴됐기 때문에 3D가상현실을 활용해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다.

롬멜 국장은 “지난 60년 간 우리가 했던 나치 청산 과정을 광주에 소개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5·18에 대한 진상조

사도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벵조 운동 사회연구단체 'YPKP65' 회장도 참여해 1965-1968년 자국에서 일어났던 대학살에 대해 소개했다. 벵조 운동씨는 “1965년 10월부터 4개월간 50만-300만명의 공산당원들이 수하르토 정권에 의해 희생됐다”며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나 진상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아르헨티나 과거사 정리의 교훈’ 발표에서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1973-1983년 아르헨티나 비텔라 정권의 납치·고문·암살을 소개하고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청산과정을 조명했다.

／글·사진·김용희 기자 kimyh@



19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아시아포럼'에 참석한 옌스 롬멜(사진 왼쪽에서 3번째) 독일 나치범죄증상사무국장이 홀로코스트 청산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6 달뜨기 20:57  
해질 19:33 달지기 06:27

### 더위 '주춤'

아침까지 비 내리다 오후부터 맑겠다.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남부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남~남서	1.0~2.5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먼바다(서)	서~북서	1.5~2.5	북서~북	1.0~2.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20 20:23	03:11 15:11
여수	간조	만조
	03:52 15:49	09:53 22:30

###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	☀	☀	☀	☀	☀	☁
11/24	13/27	14/30	15/31	16/31	17/30	17/27

### ◇ 생활지수

- ☑️ 관심
- ☑️ 식중독
- ☑️ 높음
- ☑️ 자외선
- ☑️ 좋음
- ☑️ 미세먼지

## 소방청, 오늘부터 폭염 대응체제 가동

소방청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사상 최악 폭염에 이어 올해도 평년 이상의 폭염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수위에 따라 비상대책반 구성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를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1~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단계를 올라갈수록 119종합상황실

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 인원을 확대 구성하고 시·도 소방청 간 실시간 피해 상황 파악, 폭염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리, 부처 간 협조·동원체제 구축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최고 수위인 3단계에서는 소방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19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일선 현장의 대비책도 정비했다. 폭염 대응체제가 가동되는 20일부터 전국 119구급대 1420대 구급차에 열염증·열충격·탈수·탈진·탈진·탈진·탈진 등이 비치되고 전국 구급센터에서는 열염 질환 응급 의료지도·상담을 강화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방심위 '5·18 북한 개입설' 유튜브 영상 77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목동 방송화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77건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등과 협조해 해당 영상을 국내에

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을 올린 지만원씨 등은 이번 회의에 출석해 접속 차단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심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신청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반달가슴곰 인공수정 2년 연속 성공...3마리 출산

### 구례 종복원기술원 증식장

### “유전적 다양성에 도움”

### 야생 적응 훈련 거친 뒤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 새끼 3마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 7월 구례군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5마리 암컷 곰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한 결과 어미 2마리가 각각 새끼 1마리(암컷)와 2마리(수컷 1마리, 암컷 1마리)를 출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작년 2월에

도 인공수정으로 새끼 2마리를 얻은 바 있다.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은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자연 번식을 통해 개체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힘이 센 몇몇 개체가 번식에 참여해 얼마 안되는 부모에게서만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택적인 인공수정으로 건강한 여러 개체의 후손들을 얻어 개체 수 증가와 함께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3마리는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울 가을 방사할 예정이다.

종복원기술원은 야생성을 잃어 먹이를 얻어먹으려 사람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반달가슴곰을 직접 기르며 이 같은 증식 작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수정과 별개로 지리산 야생에서는 어미 3마리가 각각 새끼 1마리(수컷), 2마리(수컷), 1마리(성별 미확인) 등 4마리를 낳은 것으로 지난 4월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지리산과 수도산 일대에 사는 야생 반달가슴곰은 총 64마리로 추정된다. 이는 태어난 4마리를 더하고 죽은 2마리를 뺀 수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1공수 정문 전두환 비석

### 5·18 자유공원으로 옮겨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진압 작전을 수행한 제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세워진 이른바 ‘전두환 비석’이 광주 5·18자유공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담양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 기념식을 지난 17일 광주 5·18자유공원 화장실 인근으로 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준공 기념식은 1983년 11공수여단이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하면서 세워진 것으로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5월 단체는 시민들이 기념식을 밟을 수 있도록 거꾸로 놓여놓았다.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분노의 의미를 담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